

뉴욕한인미술협회 (Korean-New York Artist Association)

회장 취임사

먼저, 지난 연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신 고 조영철 회장님의 명복을 빌며 취임사에 임합니다. 이취임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자리인지라 조 회장님이 더욱스럽습니다.

뉴욕한인미술협회는 1993년 10월 23일, 27명의 한인 미술인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입니다. 초대회장 오세영 화백을 시작으로 2대 오성균, 3대 정미호, 4대 오성균, 5대 김봉수, 6-7대 주옥근, 8대 안봉규, 9대 주옥근, 10-11대 윤미경, 12-13대 조영철 화백님의 대를 이어 14대 회장으로 이 자리를 감당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협회 정관을 보면 창립의 목적이 '미술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향상과 권익을 꾀하고, 뉴욕을 기점으로 미동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문화교류를 통하여 한인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성을 미주사회에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회 창립 초창기 미술인들의 열의를 가지고 창립된 조직인만큼 협회전과 각종 초대전을 망라하며 스페인 마드리드 시립 문화원에서도 초대전을 가졌을 정도로 역사를 보면 협회의 왕성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이신 고 백남준 선생님 또한 저희 협회의 고문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협회의 창립 멤버이자 현재까지도 고문으로써 협회를 든든히 지원해 주시는 주옥근 회장님께서서는 협회의 영역 확장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New York World Art Festival UN 본부기념전, 지구촌 세계 미술 소통전 등 큰 규모의 전시들을 개최하며 협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 후, 10-11 대 윤미경 회장님께서서는 그 뒤를 이어 꿈나무 사생대회, 장애아동 그림대회, Fort Lee Art Festival 등 미주사회에 한국문화 알리기와 예술을 통한 사회 기여부분에 주력하셔서 협회가 좀더 친근하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2020년 임기를 곧 마칠 예정이셨던 고 조영철 회장님께서서는 한국과의 교류전을 성사시키시어 작년부터 평택미술협회와 정기적으로 교류전을 가질 수 있는 물꼬를 터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여러 회장님들이 훌륭하게 좋은 옥토로 닦아 놓으신 터 위에서 뉴욕한인미술협회의 뿌리를 잊지 않고, 협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시대로 들어서면서 예술제도 큰 타격을 입어 많은 갤러리와 예술가들의 생계가 위협되어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지난해 평택 교류전의 새로운 방식이나 온라인을 이용한 전시방식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시대상황에 굴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난관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원하는 바는, 이 협회가 열정을 가진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던 뜻을 받들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본분인 예술가로서 Quality 있는 최선의

작품으로 승부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좋은 작품들이 모여 인정받는 전시가 열릴 수 있고, 미국이나 해외, 한국 어느 곳에서든지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멋지게 선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조희장님 추모행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한분, 한분이십니다. 저는 종으로써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멋진 협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6일

뉴욕한인미술협회 14대 회장 권효빈